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Vol. 26, No. 3 pp.125-126, August 2007

한일 인간공학 학술교류 10주년을 회고하며



이 상 도

동아대학교 교수(대한인간공학회 고문)

먼저 고인이 되신 존경하는 고 아끼다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한일 인간공학의 지난 날을 회상해 볼까합니다.

한 · 일 인간공학 연구의 학술교류에 관하여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실로 그 감회가 깊습니다. 어언간 17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0년 일본 기따규수의 산업의과대학에서 구마시로 교수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범태평양인간공학 학술대회(PPCOE)에 대한인간공학회 회원 20여명이 참가하여, 일본 인간공학회의 당시 오오시마 회장, 하야시 교수 등을 비롯한 많은 일본 학자들과의 교류가 그 첫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1. 제1회 범태평양인간공학 학술대회(PPCOE), 1990년

1992년에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제2차 PPCOE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많은 인간공학자들의 참여로 상당한 교류의 기회가 있었으며, 1994년 서울의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PPCOE에서 한 · 일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일본 인간공학회의 국제담당 이사이신 고 아끼다 선생님과 본인과의 비공식적인 서울과 부산에서의 여러 차례 대화가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대한인간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일 인간공학회 학술교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표되었던 환영사임.



사진 2. 한 · 일 학술교류의 터전을 마련한 제3회 PPCOE, 1994년

이듬해 1995년 일본의 구마시로 교수의 초청으로 기타규수의 산업의과대학을 연구방문하는 기회에 일본 인간공학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고 아끼다 교수, 전 IEA의 회장을 역임하신 스기야마 교수, 구마시로 교수와 한국측으로는 당시 대한인간공학회 회장이었던 본인과, 총무이사 이동춘 교수, 그리고 서유진 교수 등이 일본 기타규수의 프린스호텔에서 공식적인 한 · 일 간의 인간공학 연구의 학술교류에 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995년 5월 31일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36회 일본 인간공학회 학술대회에 한국 인간공학회 회장단이 초청되어 참석하고, 양국 학회 임원진들과의 상견례가 있었으며, 총회에서 본인이 대한인간공학회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스피치를 통하여 양국 간의 학술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인간공학회의 오오시마 회장과 공식적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995년 10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IEA 이사회에서 고 아끼다 교수, 사이토 박사 등 일본측 이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영국, 독일, 이태리 등을 따돌리고, 제15회 IEA총회를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으로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대한인간공학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한 · 일 간의 공고한 협력 체제를 과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03년 제15회 IEA총회 때에는, 일본 인간공학회의 총회도 IEA와 함께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름다운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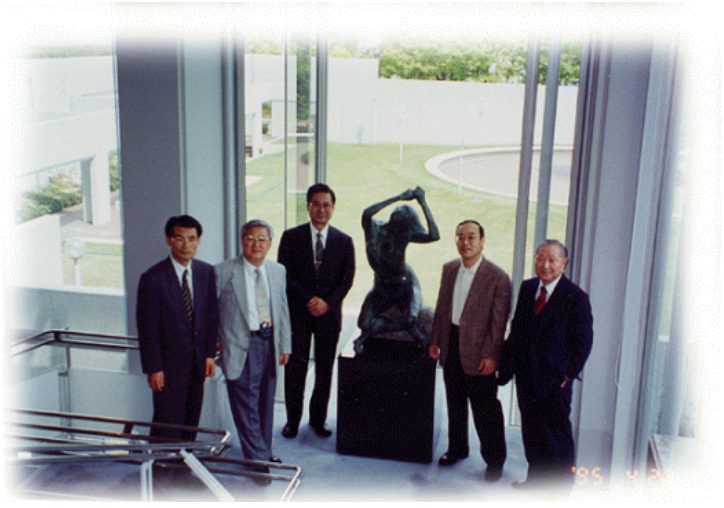


사진 3. 한일 인간공학회 학술교류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일 학회 회장단

1996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시작된 제1회 한 · 일 공동심포지엄의 출발 이후, 제10회에 이르는 세월 동안, 한 · 일 양국 간의 인간공학 학술교류가 학회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다음 세기를 넘어서도 영원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